

다니엘의 책 - 번호 95

둘째 천사의 메시지에 담긴 예언적 의미 드러내기

Jeff Pippenger

2024-02-28

첫째와 셋째 천사 모두의 운동의 역사에서, 그 메시지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그녀가 자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4:8.

둘째 천사는 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예언의 삼중 적용을 밝힌다. 둘째 천사는 예언적 기별을 전하고 있으며, 그 기별은 바벨론이 두 번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벨론을 17장과 18장에서 현대 바벨론으로 규정된 그 "큰 성"으로 지목한다. 현대 바벨론은 두 번 무너졌으며, 그 무너짐은 그녀가 모든 민족에게 "그녀의 음행의 진노"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녀의 음행은 땅의 왕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 그녀는 음행을 함께한 왕들의 세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진노", 곧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가하는 박해를 실행할 수 있었다.

포도주는 교리이며, 그녀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 교리는 태양을 숭배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리이다. 모든 나라들은 그녀의 권위의 '표', 곧 일요일 예배로 상징되는 태양 숭배를 받아들인다. 모든 나라들이 그 '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미국의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이슬람의 세 번째 화에 의해 지구에 닥쳐오는 전쟁이 격화되는 때에 이루어진다. 모든 나라들은 '평화와 안전'이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그녀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들인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말이 나오는가? 나는 이것을 결코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 크고 높은 건물들이 층층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크게 진동시키실 때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때에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땅 위에 닥쳐올 일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뉴욕에 닥쳐올 일에 관하여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뒤흔들고 또 뒤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 외에는, 나는 특별한 빛을 받은 바가 없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멸망이 있음을 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분의 강한 능력이 한 번만 닿아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무너졌을 때 반복되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힘센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가 되고” (Revelation 18:1, 2). 이것은 둘째 천사가 전한 바로 그 기별이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그가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였음이라” (Revelation 14:8). 그 포도주가 무엇인가? 곧 그의 거짓 교리들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거짓, 곧 영혼의 본래적 불멸설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많은 오류를 널리 퍼뜨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Matthew 15:9).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신성모독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행위들 가운데 하나도 성전의 두 번째 정결이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한 경고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서도 교회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부르심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음과 같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그가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였음이라’ (Revelation 14:8).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느니라’ (Revelation 18:4, 5).” Selected Messages, book 2, 118.

2001년 9월 11일부터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사이에 요한계시록 18장 처음 세 절이 성취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요일 법령 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6-12의 세 가지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완전히 이르게 되고,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녀와의 교제에서 분리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 때를 가리킨다. 이 메시지는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메시지이며, 그것은 자기의 일을 성취할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데살로니가후서 2:12) 자들이 강한 미혹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버려지게 될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연 모든 이들에게 비칠 것이며, 바벨론에 남아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은 이 부르심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내 백성아’(요한계시록 18:4). 대쟁투, 389, 390.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 옛 언약의 백성은 강한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부터, 일요일 법령 때 강한 미혹이 부어지기까지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반복되며, 그 거절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 천사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로 대표된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이며,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첫째와 셋째 메시지 사이에 놓여 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 음성의 선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지만,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모두를 거절함을 나타낸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 기별 전체를 대표하며, 첫째 천사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선포되었고 이후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다시 선포될 것이므로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이 기별은 바벨론이 두 번 무너졌음을 밝히며, 이러한 예언적 의미에서 “예언의 삼중 적용”을 가리키고 있다.

바벨과 바벨론으로 나타난 바벨론의 처음 두 번의 몰락은 현대 바벨론의 최종 몰락을 상징한다.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이중의 선포는 세 천사의 첫째 기별과 마지막 기별로

앞뒤가 맞물린다. 세 천사의 구조는 알파와 오메가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기별이 “영원한 복음”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정의상 영원한 복음, 곧 모든 시대에 동일한 복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복음의 기별이므로, 곧 처음과 마지막 기별인 첫째와 셋째 기별은 둘 다 복음이기에 같은 기별이다.

알파와 오메가께서는 세 가지 메시지에 ‘진리’라는 서명을 하셨다. 이는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놀라운 언어학자에 의해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열세 번째, 마지막 글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상징으로서 ‘열셋’은 반역을 나타내며, 그녀의 거짓 교리와 음행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반역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에서 밝혀진다. 이미 언급했듯이, 두 번째 메시지에도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이 담겨 있다. 이는 심판의 개시를 알리기 위해 밀러파 역사에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심판의 종결을 밝히기 위해 세 번째 천사의 운동에서 반복되기 때문이다.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몰락은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며, 니므롯의 오만한 반역에 대한 증거 속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표지가 담겨 있다. 이전 글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세 천사의 세 기별은 모두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첫째 기별을 나타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은 둘째 기별을 나타낸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할 때 셋째 기별은 첫째 기별 안에서 발견된다.

니므롯의 몰락, 곧 바벨론의 첫 번째 몰락에서 세 천사의 세 단계도 확인된다. 이는 'go to'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온 땅이 한 언어와 한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동쪽에서 옮겨 오다가 시날 땅에서 한 평야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모르타르로는 역청을 사용하였다.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세우되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이름을 내어 온 땅 위에 흠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짓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들은 한 백성이며 모두가 한 언어를 쓰는구나.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였으니 그들이 하고자 계획한 일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에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 위로 흠으셨고, 그들은 성읍 짓기를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 위로 흠으셨다. 창세기 11:1-9.

바벨로 표상되는 바벨론의 첫 번째 몰락은 ‘자, ...’라는 표현으로 세 번 나타난다. 세 천사는 모두 첫째 천사 안에 표상되어 있다. 다니엘서 1장도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표상하며, 또한 이 글들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 시험 과정은 1단계에서 드러난다. 곧 다니엘이 바벨론의 식단을 먹기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택했을 때이다. 그의 첫 번째 시험은, 1840년 8월 11일 밀러파 역사에서 요한이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온 첫째 천사의 시험이었다.

그는 이어 열흘 동안 외모를 살피는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은 바벨론식 식단을 먹은 자들과 다니엘처럼 채식을 선택한 자들 사이의 구별을 드러냈다. 두 번째 시험은

1844년에 둘째 천사가 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그 두 번째 시험 뒤에는 3년이 끝날 때의 시험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심판을 드러냈는데, 이는 1844년 10월 22일에 셋째 천사가 임한 것으로 상징된다.

홍수 이후 노아는 제단을 쌓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때 제단에 사용할 돌을 깎거나 다듬어서는 안 되었으며, 제단에 회반죽을 사용해서도 안 되었다. 반역자 니므롯은 벽돌과 회반죽을 사용하여, 땅을 다시 채우게 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지시되었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제단을 모조했다. 니므롯의 증언에서 첫 번째 "go to"는 첫 번째 메시지에 반역하여 형성된 "죽음의 언약"을 뜻한다. 두 번째 "go to"는 탑(교회)과 도시(국가)의 건설을 나타낸다. 니므롯의 증언에서 두 번째 "go to"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었는데, 이는 둘째 천사의 메시지에서 말하는 음행이다. 세 번째 "go to"는 사람들을 흠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을 나타낸다.

바벨론의 첫 번째 몰락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예표하고, 현대 바벨론의 몰락을 규정하는 요소들을 확립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 바벨론의 두 번째 몰락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예표한다. 이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벨론의 몰락이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재림운동의 시작과 끝에서 선포되는 둘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이다. 화이트 자매는 벨사살에게 임한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심판으로 예표되어 있었음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에게도, 예표적으로 그 첫 통치자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이, 신성한 감시자의 선고가 이르렀으니, 곧 ‘왕이여, ... 네게 말하노니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는 것이었다. 다니엘 4:31.” 『선지자와 왕』, 533.

바벨론의 두 번째 몰락은 둘째 천사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지닌다. 그 표식은 바벨론의 첫째 왕과 마지막 왕의 몰락으로 나타난다. 느부갓네살의 심판과 몰락은 ‘일곱 때’로 표현되며, 이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가리킨다. 또한 니므롯의 심판과 몰락에서의 ‘흠어짐’ 역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대한 언급이다. 벨사살의 심판과 몰락은 합하면 2,520이 되는 불타는 글자들로 표현되며, 이것 또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가리킴을 드러낸다.

‘예언의 삼중 적용’은 세 번째이자 최종적인 성취의 특성을 식별하고 규정하는 첫 두 증인에 의해 확립된다. 바벨론의 세 번의 몰락과 함께, 바벨론의 몰락을 식별하는 바로 그 메시지는 예언의 삼중 적용이 근거하는 원칙 또한 밝혀 준다. 바벨론의 처음 두 번의 몰락은 세 번째이자 최종적인 몰락의 예언적 특성을 규정한다.

밀러파의 역사는 Future for America의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되풀이된다. 밀러파의 역사에서는 윌리엄 밀러가 익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진리의 틀을 세우는 데 활용했던 규칙들을 모아 놓은 것이 그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였다. ‘예언의 삼중 적용’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식별되는 진리의 틀을 세우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집대성된 규칙들 가운데 하나다.

로마의 세 가지 양상과 바벨론 몰락의 세 가지 양상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구별점도 있다. 두로의 음녀, 곧 바벨론은 땅의 왕들과 음행하여 그들과 한 몸이지만, 이세벨이 아합 왕을 지배했듯이 그 왕들 위에 군림한다. 현대 로마는 현대 바벨론의

음녀가 그 위에 타고 군림하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때 내 눈은 그 영광에서 거두어져 땅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영광에 들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꺼이 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너희는 지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잔혹하게 임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멸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희생하라. 자신과 재산과 모든 것을 그의 제단 위에 올려 살아 있는 제물로 드려라. 영광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 도둑이 가까이하지 못하고 녹이 해치지 못하는 하늘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쌓아 두라. 후일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늘은 그만한 대가로는 너무도 값싸다. 우리는 가는 길 내내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아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항상 눈앞에 두어야 한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야 하며, 그들이 날카롭고 아픈 시련들을 통과해야 할 것임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고난을 통해 정결케 되고 단련되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가운데 계신 왕을 뵈고, 하나님과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유업을 얻어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보았을 때,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침례를 받아 시련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그분의 가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도록 예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므로,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는 신속히 전진해야 한다." 우리 중 몇몇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시간이 있었고, 우리가 내디딘 각 걸음은 다음 걸음을 내딛을 힘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때가 거의 끝나 가고 있고,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배워 온 것을 그들은 몇 달 만에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을 것이다. 그 칙령이 반포될 때 짐승과 그의 형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결단을 가져야 한다. "아니, 우리는 짐승의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 초기문집, 67.